

사천시, '항공우주 강국 코리아'를 향한 힘찬 날갯짓은 계속된다

최첨단 항공우주산업 기반시설 착착 진행중



'항공우주 테마공원' 개방 이어 '항공우주 과학관'도 준공 눈앞
항공우주산업 모든 것 보고 즐기고 체험 가능...전국 관심 집중

①항공우주 과학관 조감도와 모습을 드러내는 과학관(흰선 속 사진) ②항공우주 테마공원 ③항공우주 박물관을 체험하는 학생들 ④카이(KAI)에비에이션센터 외관

항공우주 산업의 메카, 사천시가 '항공우주 강국 코리아'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항공 산업 기반 시설 확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달 국내 최초로 준공되는 '항공우주 테마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한 것을 비롯해 올 연말 항공우주 과학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시는 항공 우주 박물관과 체험 학습이 가능한 '카이(KAI)에비에이션 센터' 등과 연계한 항공 우주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 연말 준공될 항공 우주 과학관과 항공우주 박물관, 카이 에비에이션 센터 등이 소재한 사천 사남면 유천리 일대는 항공 우주 시설이 집적화 돼 있어, 항공우주 체험을 테마로 한 관광단지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이다.

'사천 첨단항공우주 과학관' 12월 준공

항공관 · 우주관 · 신재생 에너지실 등 구성

사천시가 오는 12월 '사천 첨단 항공 우주 과학관' 준공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천시는 사천 사남면 유천리 일대 1만6500여㎡ 부지에 사업비 153억 2천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항공우주 과학관을 착공,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정비 작업이 한창이다. 지상 3층(4377여㎡) 규모로 추진 중인 이 과학관은 크게 항공관과 우주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항공 우주 과학관은 항공박물관과 항공 체험 학습이 가능한 카이(KAI)에비에이션센터와 인접해 있어, 항공우주를 주제로 한 테마 관광이 가능해 향후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과학관에는 항공우주와 관련된 상설전시관 5관을 비롯해 각종 전시가 가능한 기획 전시실, 녹지 공간과 함께 어우러진 야외 전시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설전시관은 테마별로 모두 5가지 존으로 나뉘어져 있다. ▲비행을 위한 도전과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1존 '생각을 발견하다' ▲비행의 기초와 항공에너지를 주제로 한 2존 '에너지를 발견하다' ▲ '항공과학, 비행원리, 4D 영상관'으로 구성된 3존 '항공을 경험하다' ▲ 우주 탐험과 체험이 가능한 4존 '우주를 탐험하다' ▲ 천체과학과 천체 관측을 설명한 5존 '우주를 향한 무한한 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과학관 이외에는 은하광장과 별자리 정원, 꿈나라 정원 등 아름다운 조경이 어우러진 녹지공간의 야외전시물이 마련되어 있다.

시는 올 12월 경 과학관을 준공하고 내년 3월 경 과학관 준공식과 함께 개관을 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과학관 건립으로 시는 향후 항공 산업의 신비로운 체험과 과학 마인드 제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항공 우주 과학관과 항공 박물관, 체험 학습이 가능한 카이에비에이션 센터 등과 연계 특색 있는 항공우주 관광 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준공 '사천 항공 우주 테마공원'

휴양과 현장 학습 가능...랜드 마크로 부상

항공우주 산업의 메카, 사천시가 9만7000㎡ 규모의 국내 최초의 '항공우주 테마공원'이 지난달 준공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사천 정동면 예수리 일대에 휴양과 현장학습이 가능한 항공우주 테마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지난달 이곳에서 '경남 사천 항공우주 엑스포'와 '농업 한마당 축제' 등 대형 축제가 잇따라 열렸다.

사천시는 항공우주 테마공원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도시라는 브랜드 경쟁력 확보와 공민 이용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관광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번 항공우주 테마공원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거점 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테마공원은 크게 공원과 쉼터 공간, 모형비행기 활주로와 자전거 트랙, 주차 공간 등으로 구분된다.

공원에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설치해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소나무 외에 20종의 조경수 3만556주를 식재해 시민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원 내 관리동에는 지역 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되며, 생태 연못과 테마공원의 상징인 모형 비행기 활주로(길이 80m, 폭 10m)가 설치 되는 등 시민들의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시는 향후 사천강 생태하천조성과 연계하여 테마공원과 부합되는 부대사업을 추진, 야외공연 및 각종 행사와 휴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항공우주 테마공원이 향후 다양한 행사 장소로 활용되면, 홍보 효과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이 기대 된다"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대외적으로 사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25만 명 방문 '사천 항공우주 박물관'

자유수호관 · 항공우주관 등서 작품 3600여점

국내 최초의 항공우주 박물관에는 세계 최초의 비행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선시대 비차와 한국전쟁 당시 사천에서 만들어진 부활호의 모형에서부터 우리나라 공군이 보유하고 퇴역한 항공기,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초음속 고등훈련기 등이 전시돼 있다.

자유수호관과 항공우주관, 야외전시관으로 나뉜 박물관에는 모두 36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자유 수호관에는 종합안보전시관의 전시물을 옮겨온 탓에 전쟁관련 물품들이 대부분 이곳에 전시 돼 있다. 북한군의 오토바이와 대발총 등을 볼 수 있다.

2층 항공우주관에는 조선시대 임진왜란당시 왜적을 격퇴하기 위해 진주에서 만들어진 비차(飛車)를 비롯해 사천에서 처음 만들어진 부활호 등의 제작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던 기종과 같은 B-29 폭격기와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 전용헬기인 H-19기 등이 전시돼 있다.

연간 평균 25만 명이 찾아와 지금까지 340만 관람기록을 수립한 항공우주박물관은 앞으로 항공기를 만드는 기업들과 항공우주관련 교육기관인 카이에비에이션 센터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기부 1호 '카이 에비에이션 센터'

교과 과정과 연계된 체험 학습관으로 인기

국내 최초 교육기부 체험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의 에비에이션 센터가 지난 8월 개관되어 항공 우주 관련 체험관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KAI 에비에이션 센터는 교과과정 속의 수학·과학 원리를 항공기 개발과정과 연계하여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KAI 에비에이션 캠프' 전용 체험관으로, 국내 1호 교육기부 전용관이다.

총 2968㎡ 규모의 이 센터는 항공 산업의 발전 경과 및 주요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1층 항공우주산업 박물관을 비롯해 교과과정과 연계한 25종의 항공과학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2층 체험관, 야외 교육장인 3층, 시청각 교육과 활주로 관람 등이 가능한 전망대로 구성돼 있다.

KAI는 지난 2010년부터 회사가 보유한 항공우주 분야의 지식과 경험, 공간을 교과과정 속의 수학·과학 원리와 연계한 'KAI 에비에이션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테마공원으로 변한 서택저수지 기대하세요

연못산책로·광장 등 조성... 레저 휴식 가능한 '사랑공원' 11월 개방

잔잔한 물결의 드넓은 호수를 품은 용현면의 농어촌 테마공원에서 느끼게 걷기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곳은 더없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아래로 평화로워 보이는 호수와 맞닿아 있어, 산책하기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사천시가 용현면에 준공한 농어촌 테마공원 '사랑공원(가칭)'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 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천지방산업단지 인근 용현면 서택저수지(서택지)가 지난

5월 휴식과 레저, 체험 등 다기능 친환경 친수테마공원으로 탈바꿈 되어 11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농림부가 지난 2008년 농어촌테마공원 사업 대상지로 사천시 용현면 봉양리 서택지를 선정, 지난 5월 이곳 일대(60ha)에 레저와 휴식 등이 가능한 다기능 친수테마공원인 '사랑공원(가칭)'을 조성했다. 사천시는 농림부와 1차로 50억원을 들여 지난 5월까지 이연못 주변 13000㎡부지에 공원광장 및 연못 산책로(1.6km)와

보행데크(0.5km), 육각정자 2개소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휴양시설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테마공원 내 공원광장에는 소나무와 메타세쿼이아 등 20종의 다양한 조경이 식재되어 있어, 도시민들의 힐터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테마공원은 선진성과 연계한 볼거리는 물론 걷기 코스 등의 웰빙 공간을 마련해 사천시의 관광 휴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불거리, 율거리, 먹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친환경적인 관광·휴양자원 개발로 국민의 여가활동 수요 충족과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테마공원조성을 계기로 도농교류 활성화와 친환경 농. 축산업을 통한 녹색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 새로운 도농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우 동정

사삼운동본부, 인천사진전 세번째 전시 중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본부)

캠퍼스타운역으로 옮겨... "작품 기증하면 동막·동춘역에서 연중 전시"

출향인 애향운동 [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본부(회장 천봉근)]주최로 9월19일 개막한 인천4개역 릴레이사진전이 10월 19일부터 세 번째 전시장인 캠퍼스타운역으로 옮겨 전시됐다. 지난 9월 18일 아침 동막역에서 이사회 오후까지 설치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이곳은 인천 송도신도시일대 아파트지대이므로 주로 젊은 주민들이 많다. 앞서 전시를 했던 동막역장에서 부터 지난 9월 10일 쯤에 "우리 역에 [사천삼천포에 가보자]인천사진전 작품을 계속 전시했으면 한다. 작품사진을 좀 많이 받을 수 없겠는가?"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이는 우리 사진작품을 '한 신진자에 한 점에 한 다는' 사진 무료제공 신청요건에 대한 수정제안이었다. 지난 9월 18일 방문하여 철수작업하면서 재협의한 결과 "이 작품사진 전부를 기증해 공해 주변 이웃역인 동춘역과 나누어 양 역에 전시하겠다"는 데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 성사되면 이 두 역에서 자기를 관리 하에 우리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인천사진전전시회가 최소 1년간 더 계속될 수 있다. 동막역은 전시장소인 데 합실이 전장이 낮고 아담하여 지하철 승객들의 전시작품에 대한 시선집중력이 좋아서 그

런지 몰라도, 전시회 중 역무실에 우리 사진전시회에 관하여 문의가 많았다고 한다. 이 동춘역, 동막역과 캠퍼스타운역이 있는 지역은 아파트가 십 수층이 한마을을 이루고, 주변에 각 건설회사가 건설하여 예쁘게 이름붙인 이런 아파트 마을들이 여러 개 형성된 신도시 전형이다. 신도시지역이 너무 커져서 이동하기는 어렵다. 인구 4~50만 명쯤 되는 주택지역으로 택시나 승용차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좋을 정도다. 그 새 동네들과 인천도심에 연결된 지하철역이 있으니 사람 살기에 조용하고 아주 편리한 지역이다.

시민을 위한 친절행정으로 '거듭'

사천시, 맞춤형 컨설팅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

사천시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시민을 위한 친절 행정'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원행정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10월부터 민원접수 및 증명서 발급의 단계를 최소화 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민원행정 컨설팅'은 기존 민원처리 실태 확인·점검 방식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민원 실적이 탁월한 우수 지자체 관계자(5개 지자체

5명)가 사천시를 찾아 각 부서를 직접 돌며 부서장과 담당자가 모여 상호 토론을 통해 우수지자체 모델을 전수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행정 컨설팅에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3개 분야를 신청했으며, 컨설팅 결과에 대해 지난 9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이 시행되는 부문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건축분야, 직속기간 및 사업소 민원접수 부문이다.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분청 민원실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서류 접수가 직속기관(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과 사업소(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에도 가능하다. 또 행정기관 귀책사유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현장 보상제도에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민원인이 직접 공문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증명서 발급 및 민원 신청이 가능한 전자민원창구 '민원24'를 집중 홍보하여 수주 갑병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효율적인 민원 사무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친서민 민원서비스'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52회 경남도민체전 성공개최

사천시, 2013년 경남 도민체전 성공개최 '이상무'

부서별 1차 세부 추진상황 보고회 열어... 현황 점검 및 문제점 검토 보완

사천시가 '제52회 경남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8일 오후 3시부터 시청 중 회의실에서 실국장을 포함한 실무부서 회장 등 시청 고위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꼽힐만한 '부서별 1차 세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장 시설, 자원봉사 모집 및 운영, 숙박시설 확보, 대회 홍보, 도로시설 정비 등 각 부서별 추진상황들에 대해 점검하고 추진 중 문제점들을 검토·보완하는 자리였다. 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삼천포 종합운동장과 사천공설운동장 등 모두 28개 경기장을 리모델링하고 시설 보완하는

등 종목별 경기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자원봉사단의 경우 내년 3월까지 모두 50여 개 단체 1000여 명을 모집해 교통안내, 급수봉사, 경기장 주변 환경정리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심경관 정비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도로 재포장, 중앙분리대 도색 및 정비, 교통안전관 등 도로시설물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 대회기간에는 지역 농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자체 숙박시설을 활용해 선수와 임원들을 수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달부터는 진주와 남해 등 인근지역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에 나서서 등 숙박

시설 확보를 통해 외지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 식당 및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공중위생,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을 집중 실시할 것이다. 한편 오는 2013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사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선수·임원 1만2000여 명이 27개 종목(정식 25개, 시범 2개)에 참가해 체육인들의 우의를 다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민체전을 통해 사천의 청정 이미지와 한층 정비된 경기장 시설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천의 친절 보여줄 도민체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입퇴장 관리·환경미화·교통정리 부문 등 내년 3월까지 1000여명 모집

사천시는 내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52회 경남도민체전대회' 개최를 앞두고 1000여 명의 대규모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시는 각계각층의 폭 넓은 참여를 통해 범시민적 성공체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기진행 및 관람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5개월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 기업체, 학교, 사회단체, 동호회 등 단체참여도 가능하다. 활동분야는 급수 및 음료 봉사, 관중입·퇴장 관리, 환경미화, 교통정리, 종합안내소 운영 등이다. 참여희망자는 자원봉사 신청서 작성 후 사천시 자원봉사센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가능 하다. 선발결과는 내년 3월 20일 개인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통지되거나 사천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내년 4월 중순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고 기본소양 교육과 현장적응



교육, 현장배치 및 리허설 등을 통해 분야별, 개인별 임무가 배정되어 대회기간 동안 자원 봉사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시는 자원봉사자에게 체전기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유니폼, 모자,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대회종료 후 시상 등을 통하여 격려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5-831-2615) 및 사천시 자원봉사센터(☎055-831-2533)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52회 경남도민체전 대회는 발전하는 사천의 참모습과 친절하고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이끌어주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민체전대회에는 내년 4월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사천시 삼천포 공설운동장 등 35개소에서 27개 종목에 12000여 명의 임원·선수단이 시·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게 된다.



사천시가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26개 업소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착한 가격업소 많이 애용해 주세요~"

사천시, 물가안정 음식점 등 관내 26곳 지정

"착한 가격업소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사천시가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 가격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물가안정에 기여한 음식

점(한식 13, 중식2, 경양식1, 기타1) 17개소를 비롯해 이·미용업소 4곳, 세탁소 4곳, 목욕탕 1곳 등 총 26개 업소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시민들에게 착한 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착한 가격업소란 외식업, 이·

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로 가격수준이 지역 평균가격보다 저렴하며 종사자가 친절한 업소를 말한다. 시는 착한 가격업소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표창을 부착했다. 또 물티슈, 쓰레기봉투 등을 제공하고 상수도 요금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시는 범시민적으로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착한 가격업소 이용에 앞장서고 있다. 착한 가격업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와 경상남도 물가정보시스템(<http://mulga.gn.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가격수준이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등·인한 업소,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육외가격 표시·원산지 표시 등 정부·지자체 호응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다.

올 추석 온누리 상품권 판매량 증가

사천시, 지난해보다 150% 늘어난 2억5500만원 달해

사천시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올해 추석 명절 판매액이 2억5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 1억원보다 150%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올 추석 명절 온누리 상품권 예상 판매액(2억5500만원)은 금년 판매 목표액(1억원)보다도 15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9월 26일까지 시가 집계한 판매액을 보면, 사천시청(4500

만원), 기관업체(2억1000만원) 등에서 총 2억5500만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 본부에서 지난해(6000여 만원) 이어 올해에도 1억원 가량의 상품권을, SPP조선에서도 8000여 만원을 각각 구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추석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에게 상품권 구매 독려와 재래시장 가두 캠페

인 및 무료 장비구리 나누어주기 등을 벌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관내 온누리 상품권 가맹은행은 사천·삼천포 우체국, 새마을금고 삼천포·사천지점, 경남은행 삼천포·사천지점 등 현재 3개 은행 6개 지점에서 5000원권과 1만원권이 각각 판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은 저렴한 상품과 정겨운 명절의 정취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사천 항공우주 엑스포



2012 경남 차사발 초대 공모전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

‘특화된 사천의 10월 축제’ 인파·체험 물결로 역시 남달랐다!

저물어 가는 10월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사천에서는 10월의 마지막 주말, 관내 곳곳에서 축제의 물결이 넘실던 가운데 사천을 대표하는 대형 축제 3개가 성황리 마무리 됐다.

사천 비행장과 항공우주 테마공원에서 열린 ‘경남사천 항공우주 엑스포’ 행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항공 체험형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고,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도시민과 농업인이 어우러진 ‘농업 한마당 축제’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또 올해 처음 사천에서 열린 ‘경남 차사발 초대 공모전’에는 도내 160점이 넘는 작품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국제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경남 차사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항공우주엑스포: 국내최대 체험형 항공축제 재확인·인기몰이
차사발 초대 공모전: 경남 차사발 국제학술세미나 깊이 더해
농업한마당 축제: 농업인들 화합...지역농특산물 우수성 알려

■경남사천 항공우주 엑스포

지난달 25일 화려하게 개막한 ‘제8회 경남사천 항공우주 엑스포’가 28일 폐막식을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남사천 항공우주 엑스포는 명실 공히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항공 축제를 재확인했다.

항공우주엑스포는 다른 에어쇼와 달리 직접 타보고,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항공기를 소재로 한 항공 체험형 행사로, 항공기 탑승체험, 비행 시뮬레이터 탑승체험, 모터 패러 탑승체험 등 관람객 위주의 다양한 체험을 비롯해 엑스포의 꽃인 에어쇼가 올해에도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된 ‘모터 패러 탑승체험’과 실제 비행을 방불케 할 만큼 완벽하게 재현된 ‘KT-1 시뮬레이터 탑승체험’은 축제 개막 전부터 시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내 최초로 관람객들이 곡예비행기를 타고 참공을 나는 ‘곡예비행 탑승

체험’의 경우 곡예비행기에 조종사와 탑승해 10분 가량 실제 비행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로, 사전 접수인원 외에도 많은 관람객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특히 항공우주 엑스포의 백미인 에어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블랙이글팀이 선보이는 웅장한 에어쇼와 호주 최상급 곡예 비행팀인 ‘맥스 지 에어로바틱(Maxx G Aerobatic)’의 다이내믹한 곡예비행은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신기에 가까운 블랙이글의 세계 최정상 고난도 비행은 여타 축제에서 볼 수 없었던, 1시간 가량의 풀 버전(full-version) 비행으로, 관람객들에게 높은 갈채를 받았다.

최상급 곡예팀인 맥스 지 에어로바틱의 곡예비행 또한 쉽게 볼 수 없는 명장면으로 손꼽힌다. 또 곡예비행팀과 레이싱카, 오토바이가 무한 속도경쟁을 펼치는 ‘무한레이싱’도 관람객들이 많이 몰린 행사이다.

이 외에도 항공산업의 메카인 사천의 명성에 걸맞게 평소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항공기를 감상할 수 있는 ‘홍보존’과 산업체 교류행사를 비롯해 항공 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번 항공우주엑스포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를 넘어 항공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2012 경남 차사발 초대 공모전

‘홍과 시랍’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5일부터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2012 경남 차사발 초대공모전’이 으뜸 차사발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축제장 내 주무대를 설치하고 다양한 체험장을 개설해 관람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잔치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특히 올해 처음 사천에서 열리는 만큼 도내 도민들에게 사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남 차사발의 발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학술 세미나와 강연회 등을 통해 국내의 도예인들에게도 경남 차사발의 발전방향

과 함께 세계 도자기 흐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 외에도 행사장 내에 14개의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형 축제가 되고자 했으며, 특히 경남 어린이 차예절 경연대회와 차시음회, 물레 체험과 전통 염색 체험, 흙밧기과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도자기 흙밧기 체험과 전통 염색 체험에선 체험객들의 열성적인 모습에 오히려 관람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축하 공연으로 선보인 농악 무대와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한편 올해 경남 차사발 초대공모전에는 모두 5개의 테마 10여 개의 행사가 축제 기간 마련된 가운데 이번 초대전에는 ▲역대 으뜸 차사발 초대작가전 ▲특별 다관 초대작가전 ▲옛 사발 사진전 등을 통해 160점 가량의 작품이 선보였다.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

농업인들의 화합한마당, ‘2012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복한 만남, 농촌사랑! 생명농업의 가치창조’라는 주제로 항공 우주테

마 공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흥겨운 농악과 모듬북 공연, 추수감사 제례를 시작으로 지난 27일 힘차게 막이 올랐다. 이번 축제는 농특산물을 생산한 농업인과 이를 애용하는 도시민이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경남사천 항공우주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됨에 따라 야간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몰리는데다, 농특산물 판매 및 전시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시는 이번 축제가 단순히 보는 행사를 넘어,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올해는 시민의 열의를 담은 소망 등 3400개가 사천강을 중심으로 행사장 주변에 불을 밝혀 깊어가는 가을밤의 낭만을 더해 주었다.

천연염색, 생활화분 기르기, 대피리 제작, 연 만들기, 농작물 수확체험, 사천단감한마당 어린이 장기자랑, 시골장터 운영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마련해 농업인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 체험뿐 아니라 대형 국화와 난을 비롯해 다양한 야생초화류 전시와 축하공연 등 오감 만족 볼거리를 마련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사천시, 전통 시장 ‘부활의 꿈’ 현실로

삼천포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내달 마무리·곤양 ‘한우 먹거리촌’ 연말준공
사천시, 시장활성화 위한 다양한 캠페인 벌여... 온누리 상품권 사용 독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고객확보 및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천시 지역 전통시장이 활로 모색을 위해 고심 중이다.

사천시는 최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삼천포 수산물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시장 팸 투어 개발 등 명품시장으로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곤양시장 내에 한우 먹거리촌을 준공하는 등 특화 사업을 개발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고객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조금씩 끌어들이고 있다.

삼천포수산물시장, 명품 시장으로 거듭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12월 준공 예정

낙후된 시설 탓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온 재래시장이 명품 시장으로 부활을 꿈꾼다.

사천시는 삼천포 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64억원을 들여 지난 6월 구항만 물량장(동동 485-2번지 일원)에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에 착공했다.

부지면적 7333㎡에 건축면적 4,230㎡의 구조형상가형체인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는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좁고 구불구불했던 골목길이 소방차까지 다닐 수 있도록 넓게 정비될 예정이고, 인상 찌푸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도 마련된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데 가장 큰 불편으로 지적돼 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다.

종합 유통센터 건물 옥상에는 모두 96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센터 앞 도로변에도 전용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삼천포 수산물시장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시설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향후 관광 상품화로 활로를 찾고 있다.

시는 자치단체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한 재래시장 투어를 활성화해 사천 뿐 아니라 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투어를 실시, 관광쇼피객을 끌어 들인다는 복안이다.

특히 주말 장터를 운영해 차 없는 거리 조성 및 즉석 노래자랑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향후 삼천포 유람선과 각산 케이블카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계기로 향후에는 문화 관광형 시장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할 예정”이라며 “시장 리모델링이 끝나는 12월부터 재래시장 상품권을 본격적으로 발행해 매출을 증가시키고 소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천포 수산물 시장은 지난 57년간 사천을 대표하는 수산물시장으로써 자리매김하며, 현재 330여개의 점포 상인들의 생활 터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 시장 특성화 사업 일환 곤양시장 한우먹거리촌 준공

“값 싸고 질 좋은 한우만을 엄선해 판매하는 ‘한우 먹거리촌’으로 오세요~”

사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질 좋은 한우만을 판매하는 ‘한우 먹거리촌’을 12월 말 사전 곤양시장에 조성할 계획이다. 먹거리촌 장소는 주변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주차시설이 용이한 곤양시장 내 2층 일부(619.56㎡)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곳에는 정육코너와 함께 판매장과 식당을 조성하고 이동농이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준공에 앞서 축산 관련 단체와 주민 등의 협

의를 통해 한우 먹거리촌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주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우 먹거리촌에 입주할 운영 주체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시는 향후 입주할 운영 주체를 위해 총 사업비 3억원을 들여 내부수리(인테리어) 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시는 한우 먹거리촌이 조성되면 고품질의 믿을 수 있는 한우만을 선별해 현재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한우 먹거리촌이 지역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 하겠다”며 “사천 축산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위한 사업 다양 온누리 상품권 사용 촉진 캠페인

사천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정민구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사천읍 시장과 삼천포 중앙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직접 구입하는 등 주민들에게 전통시장 사용을 독려하고 상인들의 노고를 직접 격려했다.

시는 이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위한 홍보와 함께 휴대용 장바구니 200매를 제작하여 고객들에게 즉석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등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에 앞서 시는 추석을 앞두고 일반 시민들은 물론,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의 상품권 사용을 우선 독려했다. 한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은 시장 상인들을 돕고, 물가상승으로 지갑사정이 열악해진 주부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발행되었다.

시 관계자는 “고객 유입을 위해 시장 내 점포와 주차장 등 시설을 현대화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상품권이 고객 수는 물론 매출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올 연말 준공될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조감도



내달 한우먹거리촌이 들어설 곤양시장



추석맞이 온누리 상품권 사용 촉진 캠페인 장면

사천 600주년 기념 '시민의 종' 제작 가시화

재일동포 한창우 회장 기부협약 체결... 내년 11월 타종 예정

사천 600주년 기념 상징물인 '사천 시민의 종' 제작이 가시화 되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8월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된 사천 출신의 재일동포 기업가(주)마루한 회장이 지난 10월 29일 일본에서 열린 기부 협약식을 통해 총 사업비 30억 가량이 소요되는 '사천 시민의 종' 제작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사천 시민의 종' 제작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천시의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박동선), 한창우 회장, 재단법인 한창우·나카고 교육문화재단(이사장 한유은)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일본 교토에서 '사천 시민의 종'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천 시민의 종' 조성에 따른 추진 사항을 협약하는 것으로, 한창우 회장은 이날 재단법인 한창우·

나카고 교육문화재단을 통해 지역문화사업 일환으로 '사천 시민의 종' 제작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천 시민의 종'의 문양과 디자인 선정 등 제작과 관련된 업무는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된다.

총 사업비 30억 가량이 투입될 이번 사천 시민의 종은 전통 목조 기와 형태로,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0월 까지 시청 광장 내 야외갤러리(544㎡)에 종과 종각 건립을 완료해 내년 11월에 타종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사천을 상징하게 될 시민의 종은 규모면에서도 남다른 상징성을 담고 있다. 시가 종의 규모를 4600관(17.25t)으로 한데에는 '사천 600주년'을 상징하는 '사천(4000)'과 육백년의 '육백(600)'의 의미를 담아내고자 한 것이다.



박동선 위원장, 정만규 시장, 한창우 회장, 강태훈 부이사장(사진좌측부터)은 지난 10월 29일 일본 교토에서 '사천 시민의 종' 기부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천 시민의 종"은 시가 사천지명을 사용한 지 600주년을 맞는 2013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에 시청에 건립될 예정"이라며 "사천 600주

년을 기념하는 '사천 시민의 종'은 시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시민의 안녕과 화합,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원하는 상징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기탁 받은 성금(3500만원)과 '희망 나눔 4000 이웃사랑' 성금 모금액을 모두 관내 복지 소외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취업훈련비, 소규모 집 수리비 등 통합 복지 지원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며, 시는 향후 더욱 많은 이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 나눔이 지역복지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산재해 있는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관내 복지 소외계층의 통합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구청장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정부가 경남도가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40% 정도를 부담한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것인데, 그동안 국책사업이나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전혀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도 추진사업에 따른 지방비는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정부와 도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 정만규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남지역시·군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여 시·군의 상생과 이익을 위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파트너십을 발휘해 중앙정부에 당당한 목소리를 요구하고 경남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시장·군수 협의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천단감' 싱가포르 첫 수출길
동남아시아 등 각국 '사천단감'으로 입맛 사로잡아

사천 단감이 올해 첫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다.

사천시는 지난달 19일 사천 단감 19.6톤을 사천원에조합을 통하여 싱가포르 첫 수출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수출 길을 열게 되었다.

올해 단감 수출은 사천농협(450톤), 정동농협(300톤), 사천원에조합(450톤) 등 모두 1200 톤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수출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된다.

특히 올해는 대형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철저한 관리에 의해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나 전년에 비해 수출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금년 단감 가격도 전년도 가격보다 800원에서 1500원이 올라, 올해 수출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지역 특산물인 단감은 지역특성상 기후가 온난하고 서리가 타 지역보다 늦은 편이어서 완숙기간이 길고 과실이 좋으며 껍질이 두꺼워, 단단하면서도 높은 당도와 아삭한 맛은 물론 저장성이 높은 제품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도 950톤가량을 수출해 신선농산물 수출 중 80%를 차지하는 등

주력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그동안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단감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연중 재배관리, 병해충 방제 등 기술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고품질 단감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사천단감은 높은 당도와 아삭한 맛이 일품이어서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사천단감을 비롯한 신선농산물 수출확대에 주력하여 내수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복지 지원팀, 고마워요"

저소득 맞춤형서비스 지역민들에게 '등불'

사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복지 지원팀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팀은 보건·복지·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찾아가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다.

시는 지난 3월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발맞추어 주민생

활지원과 내에 희망복지지원팀을 확대 개편하고, 민간 주도의 희망복지추진단인 '희망나눔회 사천시협의회'를 발족하여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시 희망복지지원팀과 읍면동 단위 희망나눔회에서는 태양유전, 청심회, 수양로터리, 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관내 기업체 및 각종 봉사단체와 연계해 집수리, 청소, 방역, 생필품지원, 밑반찬 지원, 취업훈련비 지원 등 2000여 건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내 사례관리 대상 가구는 총 86세대로써 서비스(사례관리),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이웃돕기 결연, 생계비 지원 등 통합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BAT 코리아와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 제55차 정기회' 사천시 개최

사천시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3시 사천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 정만규 회장(사천시장)을 비롯한 경상남도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제5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소규모 건축물 설계시 건축사의 무설계 요건 완화, 시가지(택지)가 형성된 지역의 건축허가신고대상 건축물 개발행위 허가 요건 완화, 영유아 보육료 도비 예산 확보 등

을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안건으로 채택했다.

특히, 협의회는 시장·군수와 협의되지 않으면 국책사업이나 도 추진사업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전국 시장·군

"사천을 바로 알고 사천을 사랑하자"

사천시, 청소년 1100여명 대상 역사·문화탐방 나서

사천시는 관내 8개 고등학교 재학생 11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까지 '2012 사천시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탐방은 다양한 문화 체험·교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역량 강화 및 인성을 심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 2007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탐방을 떠났다.

주요 탐방지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

향심과 효연지기를 키워줄 수 있는 관내 문화유적지와 주요 관광지로 선정하였다.

이번 탐방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선진리서실 일원과 다솔사 등 문화유적지와 사천시 발전의 중심지인 일반산업단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예비에이션센터 등을 견학하였다.

또 사천녹차단지과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대상 수상)으로 유명한 창선·삼천포대교는 물론, 신라 말 최치원 선생이 남쪽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갖고 있는 곳으로 명명한 남일대 등 주요 관광지를 심도 있게 탐방하였다.

특히 올해 처음 탐방지로 선



정된 KAI 예비에이션센터는 국내 최초의 교육기부 체험학습관으로, 항공산업과 교과과정을 연계한 25종의 항공과학 원리를 구성된 체험학습관, 야외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과과정과 연계된 체험학습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우리시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천 달마사 동광장학기금·이웃돕기 성금 전달

올해도 2500만원 쾌척... 4년째 선행

사천의 한 사찰이 매년 추석을 앞두고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해 귀감이 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합천 해인사 포교당인 달마사(주지 해일스님)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이웃에게 2500만 원의 장학복지기금을 전달했다. 복지기금 전달은 올해 4년째로 누적금액이 1억 원에 이르렀다.

복지기금 전달식은 동광장학회 이름으로 지난 9월 22일 달마사 대웅전에서 가졌다.

이날 대학생 10명에게 100만 원씩, 고등학생 20명에게 50만 원씩, 중학생 10명에게 30만 원씩 모두 2300만 원이 전달됐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10세대에 20만 원씩 200만 원이 전달됐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우수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한 해일스님은 "어려운 여건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신도들



대한불교조계종 합천 해인사 포교당인 달마사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이웃에게 2500만 원의 장학복지기금을 전달했다.

이 십시일반 모은 삼보정재를 전달하는 것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홍콩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부모에게 효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정만규 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사천

시 행정에서도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적순으로대상을 선발하다보니 막상 절실한 곳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달마사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정부 기계항공시스템과 최남호 과장 초청 간담회

항공산업 발전 위한 정책적 지원 약속

한국 산업단지공단 사천시지사(황호림 지사장)는 지난달 15일 '사천 항공·우주미니클러스터 10월 정기회'를 맞아 지경부 기계항공시스템과 최남호 과장을 초청, 입주업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니클러스터 회장사인 ㈜샘코 이창우 대표를 비롯해 사천일대산단 입주업체 및 유관기관 등 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에이티테크 윤태열 대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특정한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윤대표는 또 중소기업의 물량 소진

시 자생적으로 생산활동을 이어갈 여력이 부족하여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면, 항공분야에 대한 정부의 구별된 정책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한편 S&K항공(주)이학희 대표는 항공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도 통근버스 및 기숙사 문제가 고질적으로 남아있다면 서 근로자 모두가 차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은 기업의 손실은 물론,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애로를 설명했다. 이대표는 이어 기업체들이 일부를 부담 하더라도 산단 내 출퇴근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지경부 기계항공시스템과 최남호 과장은 항공산업이 안

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면서, 자금문제와 관련해서는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정책자금 등의 편성에 대해 중기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산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최 과장은 더불어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시사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과 해결책을 강구해 가겠다고 역설했다.

최남호 과장은 15일 간담회에 앞서 ㈜아스트, 하이즈항공(주)을 방문했으며, 간담회 이후 오후에는 ㈜코텍에 이어 KAI와 ㈜샘코 등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천읍

사천읍시장 신바람장바구니축제 개최



사천읍시장(번영회장 신승수)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사천읍시장 신바람장바구니 축제를 시장장인을 비롯한 주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주요행사는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즉석 노래자랑, 국수 빨리 먹기, 각설이 공연을 비롯한 유망가수초청 공연 등 푸짐한 볼거리와 참가자 등을 위한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사천읍시장 번영회 신승수 회장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요즘 대형마트에 손님이 몰려 재래시장의 침체화가 되고 있는 만큼 다시 찾고 정이 넘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면

이장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이장단(단장 김영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지난달 5일 오전 정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천소방서에서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초기 목격자에 의한 CPR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환자와 최초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이장단을 교육하여 정동면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성인·영아의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응급상황 대처방법 등을 배우고 마지막 시간에 심폐소생술 경연을 하여 우수한 능력을 보인 3명을 선발하여 상품 증정식을 가졌다.

사남면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이웃사랑 실천



사남면 새마을남·여지도자(회장 김해용, 임봉남)회에서는 지난 10월 8일 경영수익사업으로 공릉여 재배해온 친환경 웰빙 식품인 고구마 수확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수확한 고구마 70상자(180만원상당)는 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전량 판매가 이루어졌다.

당일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연말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2012년 가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사남면(면장 강연주)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이장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영농기기를 맞아 '2012년 가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내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홍보를 당부하였다.

평소 안전 불감증으로 농기계 사용을 예사롭게 생각해왔던 교육 참석자들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용현면

'제10회 용현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하나된 용현 환한 도약'을 주제로 '제10회 용현면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정민구 시장을 비롯한 여상규 국회의원, 최갑현 시의회의장 등 내외빈과, 1300여명의 용현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8일 용남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배구, 족구, 단체줄넘기, 윷놀이, 여자PK, 어르신 낚시, 어르신 드림통치기, OX게임, 팀별 노래자랑 등 모두 8개 종목에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바르게살기운동 용현면위원회 추석맞이 이웃사랑 실천



바르게살기운동용현면위원회(위원장 강연오)는 지난 9월 27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 3세대를 방문하여 5만원 상당의 상당과 쌀 10kg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 말벗 되어 주기 등 추석명절을 맞아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바르게살기운동용현면위원회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자연재해활동, 법질서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축동면

추석맞이 환경정화 활동



축동면(면장 최 일)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5일간 축동면 민방의 광장 앞에서 관내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무질서 추방을 위한 기초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경·민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무질서 추방 범시민운동 추진하여 시민 기초법질서 확립과 선진 시민의식을 확립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곤양면

곤양면 상공인협의회 창립



곤양면상공인협의회 창립 총회가 지난 10월 8일 곤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곤양면상공인협의회는 지역상공인의 오랜 과제인 죽어가는 지역상권을 살리고, 상거래 질서 확립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창립된 것으로, 장사하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상공인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이날 초대회장에 선임된 강봉수 회장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곤양지역의 상권 유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지만 만족스런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창립총회가 우리 상공인들이 단합하고 또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곤양면 '한가위 가요제' 개최



'한가위 가요제'가 지난 9월 29일 곤양종합시장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맞이하는 한가위 노래자랑으로, 20여명이 참가 신청을 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띤 경연을 하였는데, 이번 가요제 신청자 중 반수가 출향인으로 한가위 가요제에 대한 출향인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곤양 청년회장 김용태씨는 “최근 태풍 불라벤이 우리지역을 강타해 주택이 침수되고 농작물이 유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관내 봉사단체 및 조직단체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서로 돕고 협력하여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곤명면

군장병과 경찰병력, 태풍 피해 지역 봉사



지난 9월 16일 우리시를 할귀고 간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시름에 잠긴 농민들에게 군장병과 경찰병력들의 인력지원 활동은 다소나마 농심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곤명면은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역이었으나 지난 9월 18일부터 10여 일간 800여명의 공군 제3훈련비행단과 육군 제8919부대 3세대 장병들이 피해농가의 시설하우스 복구, 벼 세우기, 주택침수봉사를 지원하는 등 군 장병들의 헌신적인 복구 지원 활동은 명실공히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서포면

도지사 권한대행 태풍피해 현장방문 격려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9월 18일 태풍의 내습에 많은 피해를 입은 서포면 외구리 동구마을에 전격 방문하여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사천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으며, 현지 주민들을 위로·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효수 사천시 부시장, 천인석 농축산과장이 배석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하였다.

태풍 산바 피해지역 복구 현장 봉사



지난 9월 20일 태풍 산바의 내습으로 인해 침수 및 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서포면 관내 해안 인근마을에 상당한 폐기물 및 쓰레기가 물려와 수인성 전염병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군 제3훈련비행단 군수전대 장병 270여명이 피해지역의복구활동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었다.

부품정비대대 김성호 중령의 지휘아래 장병들은 각 마을별로 임무를 부여 받아 해안변 쓰레기 수거, 파손된 비닐하우스 및 시설물 철거 및 복구, 마을 인근 도로변 정리 등 도움이 절실한 마을주민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복구 활동의 최일선에서 솔선수범 하였다.

동서동

동서동민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동서동주민센터(노영주)와 동서동체육회(설민우)는 지난 10월 13일 대방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동민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동민 화합은 물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동서동을 상징할 수 있는 대고, 케이볼가 등 4개 팀이 6개 종목에 참가해 각자 팀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펼쳤으며, 또한 노래자랑을 통하여 동민의 끼를 마음껏 발산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선구동

'2012 선구동민 체육대회' 성황리에 마쳐



2012 선구동민 체육대회가 지난 10월 6일 삼천포초등학교에서 선구체육회 주관(회장 광병환)으로 4개팀(희망, 망산, 신선, 중앙)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대회는 삼천포 초등학교 풍물패의 공연, 선구동주민센터 우리춤우리가라의 공연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부 행사 5개 종목(O·X퀴즈, 줄다리기, 여성P.K, 족구, 훌라후프, 노인낚시대회) 경기가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2부행사에서는 팀별 노래자랑으로 모든 선구동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선구동 전 조직단체 합동 단합대회 가져

선구동체육회(회장 광병환)에서는 선구동 조직단체회원 80여명과 함께 전남 강진에서 단합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12 선구동민 체육대회와 동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여준 자생 단체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생 단체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구동 광병환 체육회장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선구동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각 자생단체장님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단합행사가 시정과 선구동 체육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동서금동

동서금동 조직원 화합을 위한 단합행사 개최

동서금동주민센터(동장 김법권)와 동서금동체육회(회장 박종혁)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전남 담양 및 곡성 일원에서 동서금동 조직원 및 직원 90명이 참여



한 가운데 단합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김법권 동장은 '제3회 동서금동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평소 동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여준 단체 조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동정업무에 많은 지지를 당부하였다

독거노인 사랑의 식사대접 펼쳐

사천시 동서금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총무 박점순은 지난 10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장수 아구찜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28명을 초청하여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였다. 사천시 향촌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점순씨는 올해 7월 개업하면서 서부터 지금까지 매달 둘째주 화요일이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박점순씨는 “자녀들에게 부부의 봉사정신을 몸소 보여주어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본보기가 되고자 시작했으나 평소에도 어르신들께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별용동

2012 별용동민 체육대회 성료



지난 10월 6일 개최한 별용동민 체육대회는 1천여명의 동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별용동민 체육대회는 별용동 체육회가 주관하고 조직단체 및 경로당이 후원했으며, 개회식, 종목별 경기,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했다.

소리누리단의 모듬북 공연과 내래어린이집의 유아 공연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 공 굴리기, 떡볶고 이어달리기, 어르신낚시대회, 승부차기 경기, OX퀴즈 대회,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졌다.

주민자치 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위문공연 펼쳐



별용동 주민자치 학습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위문공연을 펼쳐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사물놀이 수강생들과 통기타 수강생들은 사회복지 시설인 삼소원을 방문하여 사물놀이 공연, 한국무용, 가야금 영창, 통기타 연주 등의 위문 공연을 펼쳤다.

황동선 사물놀이 강사는 “주민자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기술로 위문공연을 펼침으로서 수강생은 보람을 느끼고, 복지시설에서는 위문이 되는 일석이조의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공연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촌동

향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동 축제 참여



향촌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대환)는 지난 10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개최한 '추억의 7080 총장 축제'에 사천시 대표로 참여하였다.

이날 축제에는 향촌동주민자치위원회 및 남양 12차 농악팀과 합동으로 30여명의 풍물팀을 구성하여 총장로 축제의 대표 행사인 거리퍼레이드 및 개막식에 참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향촌동은 지난 2005년 5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상호 문화교류, 주민자치 업무 벤치마킹 등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영·호남 교류 표창을 받은바 있다.

2012향촌동민 체육대회 및 한마당잔치 개최



2012향촌동민 체육대회 및 한마당잔치가 지난 10월 6일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서 동민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오전에 개최된 체육행사에는 발목고 달리기, 다라니 끌고달리기, 투호, 윷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동민노래

자랑이 열려 동민들의 장기를 맘껏 뽐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많은 음식과 경품으로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

한편 주관인 향촌동체육회(회장 김만수)에서는 “본 행사로 동민들의 화합과 체육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하루였으며, 향촌동 체육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동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남양동민 걷기대회 개최



남양동(동장 조현문)에서는 지난 10월 13일 남양동 체육회(회장 박종권) 주관으로 사천지역 최고 명산인 와룡산의 숨은 매력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6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남양동민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남양 임내숲에 모여 간단한 준비 체조를 시작으로 임내저수지, 감포사를 경유하여 와룡산 명품 산자락길을 따라 4km 걷기 행사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완연한 가을에 와룡산의 정취를 만끽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시민안전봉사대 주택화재현장 복구



남양동 시민안전 봉사대(대장 정진균)에서는 지난 9월 26일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시민안전 봉사대원 9명이 참여해 고장난 전기시설 수리 및 불에 그을린 가구류를 집 밖으로 옮기는 등 화재복구 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주택 화재를 당한 세대는 저소득층으로 보호받고 있는 비병면 3급 장애인 가구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방 바닥 전체가 불타고 벽면과 가구가 그을음으로 덮여 전기 누전의 위험성이 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상태였으나 이날 현장 복구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

올바른 정치후원문화 조성에 '모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호평

사천시 공무원 정치 후원금 2200만원 선관위 기탁

사천시, 도내 최초 시행...올 하반기 등록환자 1만 명 육박

사천시 공직자들이 앞장서 올바른 정치후원문화 조성에 나섰다.

사천시는 지난 10월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청 시장실에서 공무원 230여 명이 참여한 모은 정치후원금 2200만원을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국회의 원이나 선거 후보자 등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일반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형태다.

소액 정치후원 기탁금은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해 선진 정치후원문화로 각광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은 물론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자



사천시는 지난 10월 22일 시청 시장실에서 공무원 230여 명이 모은 정치후원금 2200만원을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발적으로 직원들과 동참하게 됐다"며 "정치 후원금제도가 활성화 되며 내가 낸 돈으로 바른 정치를 하는지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국민 화합과 나라 발전을 기대하는 등 민주정치에 한 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 후원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전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사천시가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응모하여 도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단시간 내에 큰 성과를 이뤄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지난 7월 개소하여 지난 10월까지 등록환자가 4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들 등록 환자 4000명 가운데 의료비를 지원받는 65세 이상어르신이 3700명으로, 전체 등록률의 92.5%에 육박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83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보건소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두고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진료비와 약제비로 매

월 4500원을,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매월 75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합병증(만성콩팥병) 검사비로 연 1회 95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등록교육센터에서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통한 치료 일정 및 질환관리, 운동 교육, 건강식이 체형 등 맞춤형 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자가 관리 능력과 투약 순응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서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모(여·74)씨는 "10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혈압 조절이 어렵고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최근 등록관리센터에 다니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전화 상담을 통해 식이요법 교육도 해주고 치료비와 약값 걱정도 지원받아 몸과 마음이 한결 건강해진 것 같



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만규 시장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지원되는 치료비가 향후 의료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절감하고,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가 앞장서서 1차 의료기관, 약국, 교육센터 등

69개소와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건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천시보건소(☎055-831-3569)나 사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055-835-1870~1)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창업사업' 추진

딸기가공사업장 신축...사업비 1억 2천여만원

지역 농특산물을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고 여성 농업인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사천시가 발 벗고 나섰다.

시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창업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창업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관명명성 방리 일원에 딸기가공사업장 신축 및 딸기팩 가공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외국 농산물 수입 증가, 농자재 가격 폭등, 농산물 가격 정체 등으로 농어민

들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여성 농업인의 사회 활동을 적극 독려하기 위함이다.

총 사업비 1억 2천 여 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1222㎡(37평)규모의 공장을내달경신축하여 딸기 팩 가공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설치 사업에 이어 향후 생산제품의 판로 개

척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 키워드 광고와 블로그, 농산물장터(사천휴게소), 백화점 시음회 마련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사업비만 지원하고 설치 사업만 추진해 주는 게 아니라 품질지도, 경영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지역 농산물과 여성의 숨겨진 연계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천시 북사동 보건진료소 개소

사천시는 농어촌 보건의료인프라를 확충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사동 보건진료소를 개소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만규 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읍 북사동 보건진료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한 북사동 보건진료소(사천읍 응동길 13-5)는 지상 1층의 173.41㎡ 규모로, 총 사업비 3억3천만원이 들었다.

신축 보건진료소는 각각 물리치료실을 겸한 건강 도움방과 보

건교육장, 진료실, 숙소 등의 현대식 공공 의료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시는 노령인구가 많은 사천시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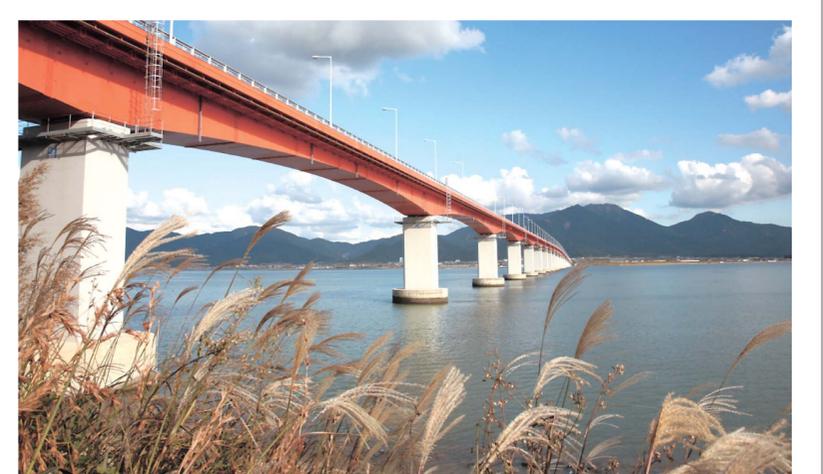
특히 진료소 내 건강 도움방은 각종 물리 치료 장비가 구비되어, 이곳을 찾게 되면 평소 농업 활동에 종사하면서 빈발하는 퇴행성 관절질환과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아서 퇴행성 및 상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건물이 낡고



협소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며 "현대식 시설을 갖춘 보건진료소가 개소되

면서 주민의 숙원사업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봄 사천대교 옆 구포마을에는 무슨 일이...

"유채·메밀꽃으로 꽃단장해요"

"내년 봄에는 사천대교 아래 만발한 유채꽃 보러 사천 구포마을로 오세요~"

사천시 서포럼 사천대교 옆 구포마을 앞 유채지가 유채꽃밭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사천대교 아래 남해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구포마을 유채지 4만 3000㎡(1만3000평)를 활용해 유채를 파종 중이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구포마을 앞 유채지를 사계절 꽃이 피는 꽃단지로 조성해 지역농수산물의 직판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은 물론, 마을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포마을 앞 유채지는 평소 잡목과 잡풀이 무성한 곳으로, 내년 늦가을에는 이곳에 메밀을 파종함에 따라 사계절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채꽃은 4월부터 피기 시작해 5월 초 무렵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에는 이곳에 메밀꽃과 유채꽃이 만개하면, 구포마을 주변이 꽃과 물이 어우러진 절경으로 거듭나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안내

최근 고혈압·당뇨병의 증가로 합병증(심근경색증, 뇌졸중) 발생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료료를 받는 분들에게 월 1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진료비와 약제비 감면 혜택을 위한 조건

- 주민등록상 사천시 거주 만65세 이상(1947년 12월31일 기준)으로 고혈압·당뇨병으로 투약 중 이며
- 관내 의원에서 등록·관리에 참여하겠다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 진료비와 약제비 감면액

구분	감면금액	감면 확인을 도장 모형
진료비 감면	관내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으시면 본인부담금중 1,500원 감면해 드립니다 (월 1회)	
합병증 검사비 감면	고혈압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년 1회 만성콩팥병 검사 실시하며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만성콩팥병 검사는 의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10월말부터 시작 예정)	
약제비 감면	관내 약국에서 약제비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질병당 최고 3,000원(월1회) 감면해드립니다. * 고혈압·당뇨병 약을 각각 처방 시 6,000원 감면	의원에서 처방전에 감면 확인을 위해 찍어주는 도장

○ 참여의원 안내

- 각의원, 김내과의원, 누기의원, 동신의원, 메리늘내과의원, 박내과, 보림의원, 신내과, 사천연합의원, 사천제일의원, 사남의원, 삼성연합의원, 선가정의원, 삼천포내과의원, 삼성의원, 사천시보건소, 서포의원, 서포우리의원, 서포중앙의원, 사천연세의원, 우리의원, 이흥기 가정의학과의원, 제일의원, 정동보건지소, 정현내과의원, 정내과의원, 행복의원.

○ 참여약국 : 사천시 소재 약국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처-고혈압·당뇨병으로 진료 받는 의원

○ 문의처

- 사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055) 835-1870, 1871
- 사천시보건소 만성병관리담당 055) 831-3567, 3569

사 천 시

2012년 10월 사천시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10월 수질검사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물"로 판명되었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10월의 물과 건강

100세 건강을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좋은 물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매일 습관적으로 체중에 맞게(체중×3.3) 자주 마시는 것이다. 성인은 몸속에 약 42~45리터 정도의 물을 지니고 있는데 이 중 2리터 정도는 매일 보충되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수분 부족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노폐물이 잘 배설되지 않아 체액의 균형이 깨져 질병에 걸리기 쉽고, 신진대사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게 되고 이는 심장병과 뇌졸중을 유발한다. **백세장수의 지름길, 건강한 물마시기에서 시작됩니다.** 기타 수돗물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은 ☎ 1577-0600으로 문의하십시오. 고 객님은 "배우만큼" 환대까지 정성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월 수질검사결과

검사항목	K-water 수질기준		관정수질기준	
	수질기준	측정된 수치	수질기준	측정된 수치
1 일염분도	100㎍/ℓ이하	0	10 수산이온농도	5.8~8.5 7.1 7.5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ℓ	불검출	중장점균류	500개/10ℓ이하 66 105
3 불 소	1.5㎎/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12
4 염도(나트륨염)	0.5㎎/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13
5 질산염질소	10㎎/ℓ이하	0.7	1.1	14
6 유리산부유물	4.0㎎/ℓ이하	0.80	0.88	15
7 총트리할로메탄	0.1㎎/ℓ이하	0.040	0.023	16
8 클로로포름	0.08㎎/ℓ이하	0.034	0.019	17
9 경 도	300㎎/ℓ이하	24	31	17

2012년 10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장

결핵환자 지원 서비스 안내

■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급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인
- 지원내용 : 결핵검사비(흉부 X선,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비(투베르쿨린검사, 인터페론감마검사)

■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균양성 다재내성결핵 및 비순응 균양성 결핵 환자)
- 지원내용 : - 입원비 : 입원치료기간(전염성 소실 판정시까지)동안 발생한 입원비 중 결핵관련 법정분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치료비 일부 지원 - 부양가족 생계비 :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별 최저생계비 현금 급여 기준

■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지원내용 : 결핵 및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10%)의 50% 지원

* 문의 : 보건소 결핵관리실(831-3530)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문

사천시 보건소는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영양플러스사업(보충영양 지원)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평가, 보충 영양식품을 일정기간 무료 지원하는 사업

■ 모집기간 : 상시 접수

■ 대상자 선정기준

1. 관내 임신부, 수유부, 출산부, 6세 이하(66개월 미만)의 영·유아
2.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 *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상 제외
3.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보건소 검사로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순위 부여

■ 지원내용

1. 대상별 영양보충식품을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 공급
2.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개인상담,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

■ 참 고 : http://health.sacheon.go.kr

■ 접수 및 문의 : 사천시보건소 영양플러스실(831-3512, 3595)

사천 바다 케이블카 사업 추진 순조

환경노동위 국감 현장시찰서 지적보다 “최선 다해 달라” 당부

사천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지적’보다는 ‘잘 해 보라’는 식의 격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오전 10시께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국내 최초로 바다 위를 지나가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예정지를 국정감사 현지시찰의 일정으로 방문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0분간 사천 바다 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설치 예정지인 초양도에서 사천시 박상철 전라사업담당관으로부터 사업 현황과 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상부정류장 설치 예정지인 각산 전망대를 둘러본 뒤 오후 3시 10분 김해공항으로 이동, 서울로 상경했다.

이번 신 위원장의 현지시찰에는 이준 보좌관, 국회사무처 윤강식 실장, 김태경 주무관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0월 17일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예정지를 국정감사 현지시찰하고 있다.

비롯해 환경부 정연만 기획조정실장, 백규석 자연보전국장, 채수만 서기관, 정석철 사무관, 국립공원 안시영 처장, 윤용환 차장, 낙동강 유역환경청 김삼배 청장, 김병주 과장, 주기회 과장 등 20여 명이 동행했다.

이날 현지시찰 일행들은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에서 초양도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고심해야 한다. 선박으로 실어 나르는 등

좋은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 보기 흉할 정도로 산이 망가진 사례도 있다. 이 곳은 제발 (민동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또, 주택들의 지붕도 예쁘게 정비했으면 좋겠다. 특히, 상부 정류장은 물론 탐방객들과 시민들을 위해 케이블카가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만규 시장은 “바다를 지나가는 케이블카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설치되는 것으로 전국적인 관광명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천 뿐만 아니라 남해안 일대가 관광지로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적 설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만규 시장은 “바다를 지나가는 케이블카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설치되는 것으로 전국적인 관광명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천 뿐만 아니라 남해안 일대가 관광지로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적 설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천시, ‘참다래 인공수분’ 현장 평가회 열려

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관우)와 전남 참다래 산학연협력단(단장 박용서)은 화분원단액을 활용한 ‘참다래 인공수분 현장 평가회’를 지난 10월 17일 사천 영길 참다래 농원에서 개최하였다.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번 인공수분기술 개발은 농촌 노령화로 인손이 부족해 다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참다래 인공수분에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평가회에 앞서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참다래 과수원에서 색소와 영양소가 함유된 물에 꽃가루를 희석해서 암꽃에 분부하였는데, 기존 석송자를 가지고 수분했을 때보다 노동력이 약 80% 절감되었다.

또한 결실률과 수량, 품질면에서 기존 석송자 인공수분에 비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전남 참다래 산학연협력단은 ‘참다래 인공수분 현장 평가회’를 지난 10월 17일 영길 참다래 농원에서 개최하였다.

해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알꽃이 많은 골드키위의 경우 1회 인공수분으로도 충분한 결실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참다래 인공수분에서 노동력 절감과 적기 인공수분을 위해 규모가 큰 과수원을 중심으로 물 수분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간이나 한적한 길,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사천시, 안전취약지 범죄예방 위한 CCTV 설치 공원 산책로 등 4개소에 8대 설치... 12월 준공

“야간이나 한적한 길,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사천시는 내방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원과 산책로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평소 탐방객이 많은 사천강 주변(2대)과 용두공원(2대), 조전공원(2대)과 신항마을(2대) 등 모두 4개소에 대해

12월 중에 CCTV 8대를 설치한다.

이번 방범용 CCTV 설치에 앞서 시는 설치할 장소의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지역의 주요 출입구와 우범지역에 각각 2대씩 모두 8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 지역에 방범용 CCTV

를 설치하기 위해 총사업비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달 중 설치 공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시는 야간 산책로와 공원 등의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공조해 치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산책로나 공원 등 탐방객이 많이 찾는 곳에 있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천 제니우스 축구단 기적 일궈다

창단 1년여만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우승 차지

경남에서 유일한 뇌병변장애 인축구단인 사천 제니우스가 작은 기적을 만들었다.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최복천) 소속 뇌성마비 축구팀 사천제니우스가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경기도에서 펼쳐

진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뇌성마비 축구경기에 경남 대표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제니우스는 이번 대회에 참가해 16강 경기부터 결승 경기까지 4경기를 치르는 동안 탁월한 실력을 뽐냈다.

16강 경기에서는 11-0이라는 큰 점수 차이로 대구 대표팀을 가볍게 제압한 뒤 8강전에서 전북 대표팀에 9-0, 4강전에서 인천 대표팀에 17-1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대회 마지막 날 12일 수원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펼쳐진 서울 대표팀과의 결승전에서도 전·후반 각각 2점과 1점을 득점하며 3-0으로 이번 대회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창단 1년 11개월 만에 두 번의 우승컵을 차지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사천제니우스는 이미 창단 1년 6개월만에 전국 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는 ‘작은 기적’을 이뤄내면서, 전국 최고의 뇌성마비 축구팀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제22회 한·일 친선 사랑의 친구 꿈꾸리 축구대회 겸 협매코리아 컵 제9회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대한지적공사 사천지사 용현면 덕곡리로 이전

대한지적공사 사천지사가 사천시 행정타운 조성지인 용현면에 새로운 동지를 틀었다.

대한지적공사 사천지사에 따르면 용현면 덕곡리 707 사천시청 옆에 건축한 사옥이 준공 허가를 받음에 따라 지난 9월 2일부터 15명의 직원이 이전 근무를 했다.

그동안 사천지사는 사천을 수석리에 위치해 있어 삼천포 지역 민과 서부 3개 면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한편 대한지적공사는 지난달 ‘비전 2025 및 뉴 CI·BI 선포식’을 갖고 국토정보 조사·관리 전문기관으로 새 출발했다.

지적공사의 새 슬로건 ‘LX’는 Land(국토), Location(공간)을 뜻하는 ‘L’과 Expert(전문가)의 ‘X’를 조합한 것으로, 공간의 가치를 창조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이라는 지적공사의 미래 비전과 위상을 담고 있다.

여고생 “고민 해결됐어요”

사천시, 맞춤형 여학생 한방건강 교실 호평

사천시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여학생 한방건강 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천시 보건소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7일부터 11월까지 11주 과정으로 ‘맞춤형 여학생 한방(월경통)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월경통으로 불편을 겪는 여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

으로 주 1회씩 9주간 운영된다.

한방교실 운영에 앞서 시는 사전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별 맞춤 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대상자의 경우 보건소 한의사와 상담하여 침 치료와 온열치료, 한약제 투약, 쑥뜸 치료 등 시술을 통한 한방치료를 병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월경 이상자 감별법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한방 건강교실에 참여한 여학생들이 월경통에 대한 기초지식을 익혀 월경통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여학생 한방교실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내년에 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에 대상 학교를 선정해 월경통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 관련 문의는 사천시 보건소(☎055-831-3575)로 하면 된다.

이번 한방교실은 사천 여자고등학교와 사천고등학교 등 관내 2개교 60여 명의 여학생을 대상

교육은 ▶월경통의 이해 및 스트레칭 관리 ▶생리기전 식이요법 ▶쑥뜸의 원리 및 효과 ▶

참여해요 산불조심 함께해요 푸른미래

산불조심

기간 2012. 11. 1 ~ 2013. 5. 15

산불없는 푸른숲!
지구온난화를 막아줍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관내 주요 산 및 통산로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구역 및 통산로 개방·폐쇄 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구분	소 지 지	통제면적	통제기간	비고
계	39개소	14,292	2011. 11. 1~2012. 5. 15	
1. 입산통제구역 지정				(단위:ha)
사천시사천읍 구림, 궁곡, 장전리	924	-	-	
사천시양동면 화평, 봉평, 장안, 장곡, 소곡, 내곡, 천촌리	2,132	-	-	
사천시남동면 우천, 개천, 평당리	1,951	-	-	
사천시유곡면 구림, 동지, 상곡리	784	-	-	
사천시유곡면 반월, 협리	269	-	-	
사천시관음면 무곡, 송천, 동곡, 홍사, 가허리	2,138	-	-	
사천시관음면 양산, 장림, 본촌, 모사, 초림, 지림, 신동리	2,519	-	-	
사천시서동면 금곡리	364	-	-	
사천시서동면 산구, 남양동	1,088	-	-	관산전역
사천시서동면, 모동, 향촌, 남양동	2,124	-	-	관산전역
2. 통산로 개방 및 폐쇄(88.1km)				
■ 개방(53.6km)				
- 2리 산: 문 회마을회관-익수터-각산 송산터-각산 산성-대방사 외				
- 5개소 선: 선곡(11.5km)				
- 외통산: 임내저수지-아령재-도암재-새성바위-민재봉(5.0km)				
- 문곡-백전재-민재봉(4.3km)				
- 용현산기-관음봉(4.7km)				
- 백전재-백전재(9.7km)				
- 통정산: 다솔사-보안암-정성-사봉암-초림까지(5.0km)				
- 이구산: 신항사-성황당산-용무산-새마을도로(9.3km)				
- 장정산: 송보이마트-화암갈림길-구암입도 외 2개소(4.8km)				
- 남 산: 남면-우터-재민마을(4.0km)				
■ 폐쇄(34.5km)				
- 외통산: 관음마을-청동사-수정골-민재봉(3.5km)				
- 용무마을-기차바위-민재봉(6.5km)				
- 진부계-민재봉(2.8km)				
- 봉정산: 관음 반점마을-보안암-익수터(4.0km)				
- 이구산: 수정-성황당산(0.9km)				
- 남촌-용무산 진입로(0.7km)				
- 관곡-관곡-용무산 갈림길(1.6km)				
- 장정산: 화암-정정-봉대산-객방(14.5km)				
3. 통제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입산 허가를 받은 후 입산 하시기 바랍니다.				
4. 위 통제사항을 어기는 시찰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합니다.				
5. 입산통제 해제: 2013. 5. 16(별도고고 성략)				